

재혼 노인이 겪는 어려움과 대처과정에 대한 질적 연구

이도영*, 이혜진**, 정은선*
안산대학교 간호학과*, 서울여자간호대학교**

A Qualitative study on Difficulties experienced and Coping process of Remarried elderly

Do-Young Lee*, Hye-Jin Lee**, Eun-Sun Jeong*
Dept. of Nursing, Ansan University*
Seoul Women's College of Nursing**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재혼한 노인들이 겪는 경험의 세계를 사고방식 및 생활양식 속에 내재되어 있는 의미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이해하기 위해서이다. 연구대상자는 자신의 경험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65세 이후 재혼한 부부 3쌍을 임의표집 하였다. Strauss와 Corbin(1998)의 근거이론방법을 적용한 질적 연구이며, 참여자 진술로부터 86개의 의미 있는 문장을 도출하고 30개의 주제로 구분하여 13개로 범주화하였다. 연구결과 중심현상은 '결혼생활에 대한 양가감정'이었으며, 이를 조율해 나가는 중재조건은 '배우자와 가족들의 인정과 신뢰', '적절한 보상'이었으며 이를 대처하도록 고안된 작용/상호작용전략은 '배우자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기'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들은 재혼 노인의 결혼생활 적응과정에 대한 본질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성공적인 재혼생활을 영위하고 홀로된 노인들이 당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 재혼 노인, 결혼생활 적응, 근거이론 방법, 현상학, 질적 연구

Abstract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the experiences of remarried elderly from the social, cultural point of view. The study subjects were randomly selected 3 remarried couples with age higher than 65 who could express their experience enough. This study adapted qualitative study with grounded theory method by Strauss and Corbin(1998), which deducted 126 significant sentences from the testimony of participants and classified those into 48 topics and categorized into 16. As for the study result, the main phenomenon was the "ambivalence of marriage" and the mediation conditions for controlling were "trust and acknowledgement of spouse and family", and "proper compensation", and the reaction/mutual reaction strategy to correspond to this situation was "to put effort to understand spouse". Such results will contribute to understanding the essence of marriage adjustment of remarried elderly, and are expected to be the fundamental material to tend to realistic problems that the widowed elderly face and to lead successfully remarriage.

Key Words : Remarried elderly, Marriage adjustment process, Grounded theory method, Phenomenology, Qualitative research

Received 26 August 2016, Revised 4 October 2016
Accepted 20 November 2016, Published 28 November 2016
Corresponding Author: Eun-Sun Jung
(Ansan University, Dept. of Nursing)
Email: esjeong@ansan.ac.kr

ISSN: 1738-1916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노인인구는 증가되면서 우리나라는 2000년을 기점으로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에 진입하였다[1]. 2015년에는 노인인구가 13.1%에 도달하였으며[2], 2017년에는 노인 인구가 14%가 되어 고령 사회(aged society)에 진입하고, 2030년이면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super aged society)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3]. 우리나라는 다른 외국과 비교해 볼 때 노인 인구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른 편으로, 노령인구의 증가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사회 구조적인 새로운 사회문제를 구성할 것으로 예측된다[4]. 또한 노년기 삶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만족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부각되고 있는 추세이다[5].

현대의 노인에게 발생하는 문제 형태는 다양하지만, 그 중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빈곤 문제와 건강 문제일 것이다[1]. 이 두 가지 주요 문제는 인간의 생리적 욕구와 생존인 가장 기본적인 욕구와 관련되며 가장 절실한 문제임에는 틀림없다. 이에 노인 문제를 다루는 전문가들도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1]. 그러나 노인 문제 중에는 빈곤과 건강 문제 외에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면서 노인을 절망적인 상황으로 빠뜨리는 문제들이 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노인들의 고독에 관한 문제이다[1,6]. 현대사회는 점차 핵가족화가 진행되면서 성장한 자녀들은 분가해 나가고 자녀들과 함께 동거 중인 노인도 자녀와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으며[4], 시간 부족, 가치관의 차이 등으로 서로가 얼굴을 마주할 시간조차 내기 어려운 형편이다[1]. 그나마 가족 중에서 노인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해 주고 편안한 대화의 상대가 되는 사람은 배우자이며[1], 배우자의 사망은 인간의 삶에 가장 크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생활사건이다[7]. 선행 연구에 따르면 배우자를 사별하거나 이혼한 노인들은 배우자가 있는 노인에 비해 우울도가 높으며[8,9], 자살시도 가능성 또한 거의 2배가량으로 높게 보고되고 있다[10].

노부부가 핵가족의 형태로 살다가 배우자를 상실하게 되면 홀로 남은 노인은 단순히 가족의 한 사람을 잃는 정도가 아니라, 가정이 해체 되는 그 이상을 경험하게 된다.

사별로 홀로된 노인은 심리적 정신적 육체적 충격 속에서 여생을 “누구와 어떻게 어디서 살 것인가?”라는 심각한 생존적인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과거에는 일반적으로 노년에 배우자가 사망하면 자녀가족들과 함께 사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기 때문에 홀로된 노인의 문제가 지금과 같이 심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핵가족화로 인하여 자녀들이 부모를 부양하는 의무가 소홀히 되는 경우가 보편화되면서[4], 가족체계와 의식의 변화로 인해 노인들이 배우자상실 후 홀로 사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 우리 사회는 이미 핵가족 문화 또는 1인가구가 보편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노인이 홀로된 경우 자신의 가치관과 라이프 스타일이 다른 자녀세대와 합가한다는 것은 그리 간단하지 않으며, 합가를 한다 하더라도 이로 인한 갈등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노인들은 배우자 상실 후 외로움과 사회적 단절을 극복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고립된 삶을 살기보다 주변과의 접점을 늘려 나아가 스스로 고독감을 해결하기 위한 다각도의 탐색이 필요하다[6].

한편, 최근에는 경제적 자립이 가능하고 건강한 노인들이 자녀와 동거하는데서 오는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고 스스로 독립적인 삶을 살려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개인의 자유와 안위를 추구하는 자녀세대들도 홀로된 노인 문제를 해결하고 노부모의 부양 부담에서 벗어나려는 욕구에 대한 대안으로 노년기 재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10년 60세 이상 재혼 건수를 살펴보면 남자노인은 4,140건 여자노인은 1,277건 이었으며, 2015년 60세 이상의 재혼 건수는 남자노인은 4,692건, 여자노인은 2,272건으로 점차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11]. 노년기의 재혼은 이제 더 이상 최악시 생각되거나 금기 시 되지 않으며, 홀로된 노인들이 선택 할 수 있는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추세이다[12]. 이와 같이 노년기 재혼은 새로운 가족유형으로 정착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나 노년기 재혼을 세심히 이해할 수 있는 경험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재혼노인을 대상으로 그들의 특성과 재혼 동기, 재혼의 성립과정, 재혼 후 가족 및 부부관계 및 재혼에 관한 견해 등을 심층 면담하여 노년기 재혼 경험의 독특성에 대한 이해를 시도하고자 한다. 근거이론 방법은 특정 사회의 현상이 알려진 사실이 거의 없거나 또는 기존 사회의 현상에 대해 전혀 다른 각도로서 새로

운 이해를 얻기 위한 질적 연구 방법론이며[13], Strauss와 Corbin[14]에 따르면 근거이론 방법은 특정 사회현상에 대한 직관력과 이해도를 높이고 인간의 행위/상호작용(act/interaction)에 대한 심도 있는 의미와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노인 재혼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 긍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선택적이고 기회적인 부분, 부정적인 측면 또한 탐색하여야 하며 재혼 노인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이해와 대처과정에 대한 방안이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질적 연구 중에서 근거이론방법을 적용하여 재혼 노인들의 삶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분석하여 유형화해 봄으로써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경험을 이해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재혼한 노인의 어려움과 적응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실체적인 이론 틀을 제공할 뿐 아니라 재혼 노인을 위한 개입 방안을 제시하여 성공적인 황혼 결혼을 이끌기 위한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재혼한 노인들의 결혼생활 적응과정을 이해하여 기술하는 것이다. 즉 노인들이 재혼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지를 확인하여 기술하는 것이다. 연구문제는 “재혼한 노인들의 결혼생활 적응과정은 어떠한가?” 이다.

2. 연구목적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재혼을 통해 드러나는 참여자의 사고방식 및 라이프 스타일 안에 내재되어 있는 반응의 의미 뿐 아니라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이해하기 위해 Strauss와 Corbin[14]의 근거이론방법을 적용

하여 분석한 질적 연구이다.

2.2 연구 참여자 및 윤리적 고려

근거이론연구를 위하여 이론적으로 적합한 대상자를 목적적 표집을 통해 선정하였다. 참여자의 선정 기준은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듣고 참여의사를 밝힌 대상자로 연구주제와 관련하여 자신의 경험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대상으로 편의표집 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65세 이후에 재혼한 부부 3쌍으로 총 6명이 구성되었으며, 면담내용 중 의미 있는 진술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 포화상태에 이를 때까지 면담을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나이는 평균 74.83±3.76세 이었으며, 결혼기간은 약 3년 정도였다. 교육 정도는 고등학교 졸업이 4명, 중학교 졸업이 1명, 초등학교 졸업이 1명이었으며, 자녀의 수는 평균 3.33±1.03명이었다. 연구 참여자에게 면담 내용은 본 연구의 목적에만 사용하고 익명성과 비밀 유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중단할 수 있고, 연구가 종료된 후 녹음된 내용과 자료는 모두 폐기될 것임을 설명한 후 서면으로 동의를 작성하였다.

2.3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14년 9월 5일부터 2014년 12월 20일까지 1쌍의 부부 당, 2번 이상 실시했다. 면담장소는 대상자의 거주지와 가까운 곳으로 합의하여 선정하였으며 토의에 방해 받지 않을 수 있는 조용한 공간에서 실시하였다. 1회 면담 시간은 약 3시간가량 소요되었다. 면담은 연구자 인사말과 상호소개 후 도입질문을 거쳐 주요 질문으로 이루어졌다. 질문은 “어떻게 재혼하게 되셨습니까?”, “재혼하기까지의 과정은 어떠하셨습니다?”, “재혼 후 가족관계는 어떻습니까?”, “노인 재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등이었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6)

Participants	Gender	Age (years)	Educational level	Number of children	marriage duration(month)
1	Male	72	High school	3	29
2	Female	68	High school	3	29
3	Male	78	Middle school	4	42
4	Female	72	High school	2	42
5	Male	83	Elementary	5	38
6	Female	76	High school	3	38

2.4 자료 분석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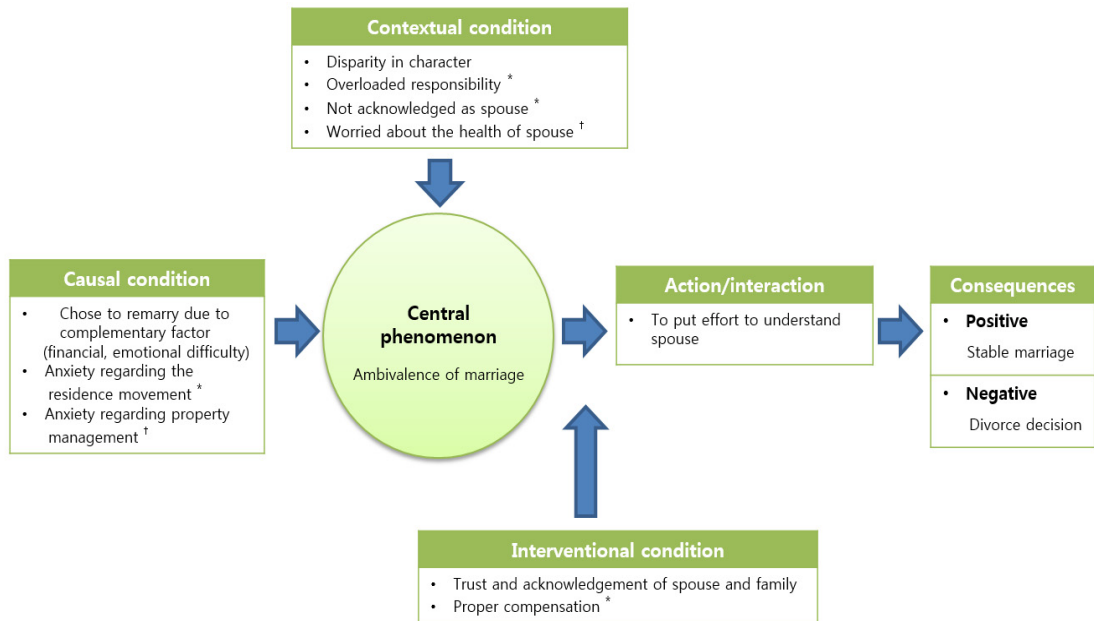
자료 분석방법은 Strauss와 Corbin[15]이 제시한 근거이론방법을 이용하였다. 녹취된 자료를 원 자료로 사용하였으며, 연구자가 얻고자 하는 정보에 대한 질문을 미리 면담 표에 정리하여 질문하여 연구를 위한 내용이 누락되지 않고 자료가 포화될 수 있도록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 분석의 절차는 [14]이 제시한 개방코딩(open coding), 축코딩(axial coding) 및 선택코딩(selective coding)의 절차에 따라 분석하고 자료수집과 동시에 이루어졌다. 첫 번째 개방코딩 단계에서는 대상자가 표현한 언어 그대로 인터뷰한 내용을 전사하여 한 줄씩 분석하는 줄 단위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축코딩 단계에서는 인과적 조건, 중심현상, 맥락적 조건, 중재적 조건, 작용/상호작용 전략 및 결과로 분류하였다. 마지막으로 선택코딩 단계에서는 각 범주 간에 반복적 패턴으로 나타나는 관계를 정형화하여 유형분석을 하였다.

연구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연구 분석결과를 6명의 참여자에게 보여주고 본인의 경험들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를 검증받았다. 검증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하고

참여자의 언어로 수정 보완하였다. 또한 근거이론의 전문가인 2명의 교수로부터 자료 분석에 대한 조언을 받았다.

3. 연구결과

연구 참여자의 진술로부터 86개의 의미 있는 문장을 도출하여 30개의 주제로 구분하여 16개로 범주화 시켜 Strauss와 Corbin[15]이 제시하는 모형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에 의해 재혼한 노인의 결혼생활 경험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Fig. 1]. 본 연구에서 도출된 황혼 결혼한 노인의 적응 과정을 나타내는 중심현상은 ‘결혼 생활에 대한 양가감정’이었다. 이러한 중심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적 조건으로는 공통적으로 ‘상호보완적(경제적, 정서적)인 요인으로 재혼을 선택’하였으며, 여자노인의 경우에는 ‘거주지 이동에 따른 불안’, 남자노인의 경우에는 ‘재산관리에 대한 두려움’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맥락적 조건으로는 공통적으로 ‘성격차이’가 작용되고 있었으며, 여자노인의 경우 ‘역할 과중’, ‘배우자로 인정받지 못



* : Female elder † : Male elder

[Fig. 1] Paradigm model of Marriage adjustment process of remarried elderly

함'이, 남자노인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건강을 염려'가 맥락적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중재적 조건으로는 공통적으로 '배우자와 가족들의 배려와 인정'이 있었으며 여자노인의 경우 '적절한 보상'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 나타난 행동/상호작용 전략으로는 '배우자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기'의 범주가 포함되었고, 적응의 결과는 '안정된 생활'이라는 긍정적 범주와 '이혼을 결심'이라는 부정적 범주로 도출되었다.

3.1 중심현상

근거이론 방법에서 현상은 어떤 행동/상호작용에 의해 조절되거나 다루어지는 핵심적인 아이디어나 사건 등이다[16]. 본 연구에서 황혼에 결혼한 노인의 적응을 나타내는 중심현상은 '결혼생활에 대한 양가감정'이었으며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중재적 조건 속에서 행동/상호작용 전략들이 이러한 중심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전개되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재혼을 희망하는 동기는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낭만적인 이유보다는 금전과 관련된 실질적인 이유가 개입된 경우가 많다[6]. 본 연구에서도 여자노인의 대부분은 재혼의 동기가 경제적인 요인이었으며, 경제적인 요인은 노년기 결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알 수 있다. 남자노인의 경우 경제력이 뒷받침 될수록 다양한 여성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며, 여자노인의 경우 경제력이 없는 여자노인일수록 재혼을 선택하는 동기로 작용하고 있었다. 남자노인은 여자노인에게 경제력을 나누어주는 대신 그 보답으로 자신의 수발을 들어주고 정서적으로 지원하는 여성을 찾았다. 여자노인은 재혼함으로써 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자녀들의 부양 부담 및 부양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재혼을 선택했다. 이처럼 노년기의 재혼은 상대방의 부족한 부분을 충족시켜 줌으로써 서로에게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재혼함으로써 아들, 딸과 함께 사는 것보다 편안하고 경제적, 정서적으로나 안정적인 부분도 있었지만, 배우자의 질병을 결혼 후에 알게 되거나 결혼 후에 달라지는 경제적 합의 및 성격 차이로 인한 신뢰감의 상실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갈등을 겪으면서도 자신을 지지해주는 가족들에게 힘을 얻어 어려운 여건 속에서 가족이 되어가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며 고군

분투하고 있었다.

“지 아버지 홀아비 되어서 외로운 거 자식들은 몰라. 애 새끼들이 오길 하나. 너무 외로워서 정말 못 견디겠더라...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서로 정답게 살지는 않았어도 부부가 사는 것 같았는데...(참여자 3)”

“딸네 집에서 사는 것 보아야 그저 나 좋다는 놈 있으면 그리고 사는 게 식모든 종살이든 낫지(참여자 2)”

“여편네는 생활비 주면 거기서 또 모아 놓고.. 살림꾼이 따로 없어... 나 일 나간 사이 점심이고 저녁이고 틀나는 데로 아들내로 가니 어디로 빼돌리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해. 처음에 나한테 올 때는 그저 맨 몸으로 딸자식 눈치 안보고 맨입에 풀칠하는 거라고 하드만 제 작년부터 인가 이놈의 아파트 땀시 서로가 지 자식에게 남기려고 혈안이 된 거 같기도 하고...(참여자 5)”

“그래도 내 옆에 이려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예전 이량은 비교가 안 되는 기라(참여자 1).”

3.2 인과적 조건

근거이론 방법에서 인과적 조건은 중심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이나 상황에 대한 설명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통적으로 '상호보완적(경제적, 정서적)인 요인으로 재혼을 선택'하였으며, 여자노인의 경우에는 '거주지 이동에 따른 불안', 남자노인의 경우에는 '재산관리에 대한 두려움'으로 나타났다. 재혼한 노인의 적응 과정으로서 중심현상은 '결혼생활에 대한 양가감정'이 인과적 조건이었다.

참여자들의 대부분은 홀로 긴 세월을 보내던 중 우연한 기회에 배우자를 만나 결혼 생활을 시작하였다. 남자노인은 정서적인 욕구를 해결해 줄 여성을 찾아 재혼하고, 여성노인은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혼을 선택하였다. 또한 여성노인의 경우 결혼을 하면서 자식들과 떨어져 낯선 지역으로의 이동하게 되고, 남자노인의 경우는 배우자에게 재산을 뺏길 수도 있다는 두려움으로 인해 결혼생활에 대한 회의를 경험하기도 하였다.

“혼자 사니 집안 꼴이 말이 아니었는데, 당직하고 들어가니까 집도 싹 치워있고 밥해놓고 기다리고 있더라

고.. 그래서 재혼을 서둘렀지(참여자 1).”

“혼자 사는 게 편치. 자식 있고 돈 있고 하면 재혼 안 했을 거야. 혼한 말로 요즘 나가면 남자들 많잖아. 남자들 하고 엔조이하고.. 꼭 그 집에 가서 살아야 하는 건 아니잖아(참여자 4).”

“나는 농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 처음 재혼이라는 말을 꺼냈을 때에는 밥만 하고 살면 된다고 했는데, 막상 와보니까 밥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밭일도 해야 하니까.. 가끔 힘들 때 내가 여기 밥 세끼 얻어먹으려고 이 짓하고 있나 우스갯소리로 영감남한테 그러지(참여자6).”

“결혼하고 처음 전 남편 제삿날이었어. 지금까지 계속 아들, 딸들 다 모여 같이 제사 지냈는데 나는 가볼 수가 없으니까 눈물 나더라고.. 결혼하기 전에는 자식들도 보고 싶으면 바로 보러 가고, 자식들도 자주 오고 그랬는데, 내가 이렇게 멀리 있으니까 지금은 자주 못 봐서 마음이 아프지(참여자 2).”

“주변에서 재혼한다고 하니까 사람 잘못 들으면 집안 품비박산 난다고.. 여자 잘못 만나 돈 주고 가버린 이도 많다고.. 애인이나 하나 만들어서 즐기면서 살라 하는데, 기억 없는 애인보다야 내 살날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래도 옆에 있어주는 온기가 필요한 거지(참여자 3).”

3.3 맥락적 조건

근거이론방법에서 맥락적 조건은 중심현상에 속하는 특정한 속성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 맥락적 조건은 공통적으로는 ‘성격차이’로 작용되고 있었으며, 여자노인의 경우에는 ‘역할 과중’과 ‘배우자로 인정받지 못함’이, 남자노인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건강을 염려’가 도출되었다.

여자노인의 경우 배우자로서 어머니로서 사랑으로 존중받고 가족으로 인정받기 보다는 집안의 살림을 맡아주고 배우자의 수발을 드는 가사도우미와 비슷한 역할이 차지하는 부분이 많았다. 남성노인의 경우 새로 인연을 맺은 배우자로 인해 자신의 재산을 탕진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참여자가 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은 사실혼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또한 재혼을 몇 번 만나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 결혼 전에 미처 알지 못한 성격차이로 인한 갈등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아침이든 점심이든 그저 들어오는 데로 밥해줬다 받치고, 좀 쉬나 싶으면 장보고 밥해야 하고..(참여자 4).”

“아무것도 안 받고 왔는데 혼인신고 안 해주면 내가 먼저 죽으면 지는 어떻게 하냐고 울더라고.. 그제 골치거리야. 아들놈은 집 뺨길까봐 아등바등하고, 더 살아봐야 알지. 주변 얘기 들어보면 혼인신고 해주는 날로 찬밥신세라는데...(참여자 1)”

“우리 집사람은 두 살 연상인데, 얼굴도 예쁘고, 센스가 있는 여자라 고민하지 않고 결혼했지. 그런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 계곡에 놀러갔는데 갑자기 걷지를 못하는 거야. 그 때 잠깐 어린 여자랑 결혼할 걸 그랬나 싶더라고.. 건강이 제일 걱정이 돼(참여자 5).”

“결혼해서 살면 살갑게 말동무도 되어 주고 그럴 줄 알았는데, 통 말을 안 하니 솔직히 외로워. 벽이 따로 없어(참여자 4).”

“돈 아끼려고 전화도 못 쓰게 하고, 물도 못 쓰게 하고, 불도 꺼버리는 사람이야. 성격도 자기 밖에 모르는 사람이더라고.. 애들도 자기 아버지를 안 보려고 해(참여자2).”

3.4 중재적 조건

근거이론에서 중재적 조건은 중심현상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촉진하거나 억제하는 조건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황혼 결혼한 노인의 ‘결혼 생활에 대한 양가감정’을 조율해 나가고 가족구성원이 되어가는 것을 촉진하는 것으로는 남녀 노인 모두 공통적으로 ‘배우자와 가족들의 인정과 신뢰’가 도출되었으며, 여자노인의 경우에는 ‘적절한 보상’과 같은 지지적 요인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결혼생활을 유지하면서 자신의 역할이나 가족구성원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으려 하며 배우자로부터 신뢰를 얻어가는 과정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배우자로부터의 인정과 신뢰는 본인 스스로가 결혼 생활에 대한 애착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고, 가족구성원으로

인정받는 기회가 되었다. 노년기의 성공적인 재혼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부간의 안정적인 관계가 필요한데, 이러한 안정적인 관계에는 비슷한 교육 수준이나 사회·경제적 수준의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혼배우자 또는 어머니로서의 역할이 적절한 보상 및 혼인신고와 연결되는 것은 안정적인 결혼생활을 정착하는데 중요한 출발점이 되고 있었다.

“내가 애교가 좀 많은 편이야. 그래서 살갑게 대해주고, 손주들 용돈도 많이 주고 했더니, 전 처 자식들도 나한테 참 잘해. 그이도 그런 부분을 굉장히 좋게 봐주는 것 같더라고(참여자 6)”

“우리 집사람은 고등학교까지 나왔어. 그래서 그런지 딱 막히지가 않은 거야. 이야기 하는 것도 재밌고, 수십년을 같이 산 부부도 말이 안 통하는 경우가 많잖아. 혼자 살 때는 말할 사람도 어떻게 살았나 싶어(참여자 5)”

“올해가 결혼한 지 2년 되었는데, 올 해부터 매년 천만원 씩 주겠데.. 도시에서 혼자 살 때는 백화점에도 쇼핑하러 가고, 친구들이랑 술도 한잔씩하고 해서 자유롭게는 했지만, 돈 걱정이 많았거든. 여기 와서 돈 걱정 안하고 살았는데, 용돈까지 주면 마음의 여유가 좀 더 생길 것 같아. 내 자식들 필요할 때 도와주기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참여자 6)”

3.5 작용/상호작용 전략

근거이론에서 작용/상호작용전략이란 중심현상을 조절하고 처리하고 이에 대처하도록 고안된 전략들이다. 본 연구에서는 ‘배우자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기’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대부분 결혼 생활에 대한 갈등을 느끼면서도, 배우자의 성격이나 가치관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가족의 도움을 받으면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갔다. 초혼의 경우 자녀들이 부부간의 불화 시에 화해하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매개 역할을 해주지만 노년기 재혼은 자녀라는 매개체가 없으므로 더욱 더 서로의 믿음과 신뢰가 요구되어진다고 할 수 있다. 서로를 위한 배려와 이해는 성공적인 황혼 결혼으로 이끌어 나가는데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로 믿음으로써 만나는 것이 그게 가장 행복한 길로

가는 거라고 나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 그리고 안 맞는 부분이 있다면 ‘이 사람이 왜 이리지’ 할 게 아니라 이해해 보려고 노력해야 해. 서로 이해하고 믿음을 가진다면 두 번을 결혼하든 세 번을 결혼하든 재혼이 그렇게 두려운 것만은 아니야. 근테 그거는 세월이 가야 돼. 살면서 서로 거짓 없이 솔직하고 그런 가운데서 신뢰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것이 가장 남남끼리 만나서 사는데 중요한 것 같아.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야(참여자 5).”

3.6 결과

근거이론방법에서 결과는 작용이나 상호작용의 결과 또는 성과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안정된 결혼생활’이라는 긍정적 범주와 ‘이혼을 결심’이라는 부정적 범주가 결과로 도출되었다.

황혼 결혼한 노인은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과 함께 결혼 전보다 삶의 의지를 보이며 결혼 생활에 대한 확고한 의미를 확립해 나갔다. 배우자와의 관계도 좋고, 가족들로부터 인정도 받으며 안정된 결혼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식모살이 같은 상황에 내몰리기도 하고, 돈만 탐내는 사람으로 오인하여 상처받고, 수치심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고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난 재혼하고 다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 그런데 같이 살자마자 내 무릎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야 되는 일이 생기니까 엄청 미안하더라고.. 왜 살아야 하는지 이유도 생겼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건강관리 잘 해서 오래 살고 싶어. 언제까지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나 혼자 살면 이렇게 생각하고 살겠어. 나 같은 늙은이에게 관심 가져주는 사람이 있겠어.. 내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아무도 관심도 없는데.. 난 이 사람을 위해서라도 오래 오래 살아야 돼(참여자 1).”

“연애는 한 달 했지. 난 이 사람을 참 몰랐어. 아주 몰랐어. 이 사람하고 사는 정이 있어서 풀어주고 이런 걸 경험해 보지 못했어. 스किन도 없고.. 그렇게 살담으면 자기 재산 다 쥐야 하니가 살을 안 닿는 거래. 누가 그런 걸 계산하고 살겠어. /중략/ 이제 안 살기로 마음먹으니까 편해졌어(참여자 4).”

4. 논의

현대사회의 노년기 재혼은 더 이상 금기나 죄악으로 여겨지지 않으며 오히려 홀로된 노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생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6]. Ganong과 Coleman[17]의 연구에 따르면 남자 노인의 경우 재혼을 하고 싶은 이유로 늙을수록 배우자의 필요성을 느끼며, 혼자 생활함이나 자녀부부의 동거에 따른 불편감이나 고독감으로 나타났다으며, 여자 노인의 경우 가치관이 다른 며느리와 의 시집살이나 경제적 이유라고 보고하였다. 이에 대해 Park과 Bae[6]는 남자노인은 배우자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충분한 재정적 능력이 있으므로 재혼을 하게 되는 경제적 활용형이라고 분류하였고, 여자노인은 빈곤이나 생계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재혼을 선택하는 빈곤 타결형으로 분류하였다. 이와 같이 홀로된 노인이 재혼을 선택하게 된 동기는 노인의 현실적인 상황과 관련이 있으며, 노년기 재혼에 가장 큰 이유를 차지하는 요인 중 하나는 경제적 요인이라고 하겠다.

Park과 Bae[6]의 연구에 따르면 재혼의 또 다른 동기로는 배우자의 상실에 따른 정신적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이다. 남자 노인은 대부분 경제활동에서 떠난 상태이므로 젊은 시절의 역할인 직장 동료, 이웃, 가족에서 왕래가 뜸한 상태로 정서적 어려움을 겪게 되며, 홀로 사는 여자노인의 경우에는 자녀들의 별거에 따른 어머니로써의 역할 상실, 남편의 부재로 인한 사회적 단절을 겪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서적 어려움을 겪은 노인들은 그 돌파구로 재혼을 선택하게 되고, 새로운 배우자를 통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역할을 부여받는 기회를 갖게 된다.

본 연구 결과에서도 노년기에 재혼을 선택하는 인과적 조건은 ‘경제적 또는 정서적 어려움으로 재혼을 선택’이라고 분석되었다. 또한 ‘거주지 이동에 따른 불안’의 세부 진술 또한 경제적 및 정서적인 원인으로 유발되므로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Park과 Bae[6]의 연구에서는 노인들의 재혼생활에서의 긍정적 측면으로는 홀로 살아가며 느끼는 두려움이나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과 자녀들에게 경제적 혹은 정서적인 피해를 끼치지 않아도 좋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구체적인 사항에는 성별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남자노인은 ‘아내가 없는 자리의 가사노

동에 대한 부담감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 좋다’는 응답을 하였고, 여자노인은 ‘질병이나 생계유지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 좋다’고 하였다. Koo[18]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의 삶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편이며, 사회적으로 지지해줄 수 있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고하였다. Cho[19]는 사회적 지지의 수준이 높을수록 건강증진 행위 수준이 높아 노인이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이 향상된다고 하였는데, 사회적 지지로는 가족 및 가까운 지인, 지역사회 상호작용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노인들이 안정감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노인의 사회참여 및 친목 활동을 사회적으로 독려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맥락적 조건은 ‘역할 과중’, ‘배우자로 인정받지 못함’, ‘배우자의 건강을 염려’, ‘성격 차이’로 도출되었다. 재혼생활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초혼이 아니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들을 극복해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어려움들은 서로의 믿음과 인내를 바탕으로 상호 간의 이해 및 배려가 요구된다. 재혼생활에서의 갈등은 자녀나 주변 친인척으로 인한 문제보다는 당사자들끼리 기인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아무리 재혼을 통한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하였다 할지라도 시간이 흐를수록 초혼에서와 마찬가지로 이상 생활적 갈등이나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부부가 함께 생을 마감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둘 중 한 명은 배우자의 상실을 필연적으로 경험하게 된다. 배우자의 상실로 인해 대부분의 노인들은 경제적,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어려움과 고통을 겪게 되고 그들의 삶의 질은 낮아지게 된다[1]. 갈등이 발생할 시에는 초혼의 경우보다 중재적 역할을 할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믿음과 이해에만 의지하는 재혼의 생활은 다소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는 부정적인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6]. 현실적으로는 아직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설정되어 있지는 않다. 즉 홀로된 노인들이 남은 여생동안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가족들의 관심과 사회의 적절한 개입과 지원을 필요로 하게 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노인의 재혼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기 시작은 하였지만, 아직은 실질적인 방안 마련은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과거에 어린이들이 어른의 부속품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한다는 점이 재발견되었듯이, 노인들도 새로운 사랑을 할 수 있고, 외로움을 해소할 권리가 있는 인간임

을 가장 보편적이고 인간적인 차원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다[20].

마지막으로 사별하거나 이혼한 노인에 비해 배우자가 있는 노인은 외로움이나 경제적 빈곤을 덜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정신건강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6]. 그러나 갈등이 발생할 경우 초혼의 경우보다 중재적 역할을 할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믿음과 이해에만 의지하는 재혼의 생활은 어쩌면 다소 불안정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재혼을 선택할 때 남은여생을 함께 보낼 사람으로서 진정으로 자신에게 맞는 사람인지에 대한 신중함이 무엇보다 요구된다. 특히 경제적 이유나 병 간호 등을 목적으로 재혼할 경우 파탄이 날 가능성이 높다[1]. 이를 위해서는 단 시간에 결정하는 것보다는 장기간동안 정서적 유대와 신뢰관계를 충분히 쌓아 나가는 것이 성공적 재혼 생활의 지름길인 것이다. 또한, 재혼을 생각하고 있는 노년층에게는 재혼준비프로그램을, 그리고 재혼을 한 노년층에게는 보다 성공적인 재혼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년기 재혼적응 프로그램과 같은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증진하여 홀로된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복지적 차원에서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5. 결론 및 제언

최근에 홀로된 노인들의 재혼이 과거에 비해 많이 늘고 있다. 여생을 보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 재혼을 선택하였지만 사회의 시선과 먼저 가신 부모에 대한 생각, 재산 상속의 문제 등으로 가족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다. 본 연구는 이러한 재혼노인들이 겪는 경험의 세계를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이해하기 위해서 시도되었다. 연구대상자는 65세 이후 재혼한 부부 3쌍이었으며, Strauss와 Corbin[14]의 근거이론방법을 적용한 질적 연구이다. 참여자 진술로부터 86개의 의미 있는 문장을 도출하여 30개의 주제로 구분하여 16개로 범주화하였다. 연구결과 중심현상은 ‘결혼생활에 대한 양가감정’이었으며, 원인에 해당하는 인과적 조건은 경제적 또는 정서적 어려움으로 재혼을 선택, ‘거주지 이동에 따른 불안’, ‘재산관리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맥락적 조건은 ‘역할 과중’, ‘배우자로 인정받지 못함’, ‘배우자의 건강을 염려’, ‘성격 차이’

로 도출되었으며, 이들을 조율해 나가는 중재조건은 ‘배우자와 가족들의 인정과 신뢰’, ‘적절한 보상’으로 도출되었다. 이에 작용/상호작용전략은 ‘배우자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기’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들은 재혼 노인의 결혼생활 적응과정에 대한 본질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성공적인 재혼생활을 영위하고 홀로된 노인들이 당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재혼한 노인가족의 생활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노년기 재혼의 준비 단계부터 지속적인 연구를 실시함으로써 노년층이 재혼에 이르는 과정 및 재혼 후의 변화 및 적응을 면밀히 살펴 볼 수 있는 종단적 연구가 요구된다.

둘째, 재혼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점차적으로 개방적으로 나아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러한 현실에 대하여 노인복지 차원에서 홀로된 노인의 재혼을 지원하고 개방적으로 언급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REFERENCES

- [1] Y. S. Park, "Study on Process and remarriage of elderly." *Journal of Korean Hyo Studies*, Vol. 3, pp. 155-179, 2006.
- [2]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2010 Elderly's Statistics",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1/index.board?bmode=read&aSeq=180000 (May 20, 2016)
- [3] J. Y. Jung, "MBC new", http://imnews.imbc.com/replay/2016/nw1800/article/3921069_19830.html (April 08, 2016)
- [4] K. H. Yang, M. K. Jung, "Mediating Effects According to Family Type in the Complex Relationship between Psychological and Material Factors and Depression in the Elderly."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and Management*, Vol. 13, No. 7, pp. 437-444, 2015. <http://dx.doi.org/10.14400/JDC.2015.13.7.437>

- [5] Y. C. Kim, J. N. Paik, "The Effects of Family Conflict, Social Support and Self-Esteem on Life Satisfaction of the Aged."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and Management, Vol. 14 No. 7, pp.279-287, 2016. <http://dx.doi.org/10.14400/JDC.2016.14.7.279>
- [6] C. S. Park, N. R. Bae, "A Study on the Remarriage of the Elderly People." Korean Association of Family Relations, Vol. 10, No. 2, pp. 115-132, 2005.
- [7] T. H. Holmes, R. H. Rahe, "The social readjustment rating scale."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Vol. 11, pp. 213-218, 1967.
- [8] M. A. Lee, "Depression according to marital status, gender in the elderly." Korean Sociological Association, Vol. 44, No. 4, pp. 32-62, 2010.
- [9] H. J. Jeon. "Social relationships and mental health of elderly",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Proceeding of the KHMA Conference, pp.1-17, 2003.
- [10] S. Wiktorsson, B. Runeson, I. Skoog, S. Ostling, M. Waern, "Attempted suicide in the elderly: Characteristics of suicide attempters 70 years and older and a general population comparison group." American Journal of Geriatric Psychiatry, Vol. 18, No. 1, pp. 57-67, 2010.
- [11]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2015 remarriage Statistics",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3A12&vw_cd=&list_id=&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K1&path= (July 10, 2016)
- [12] H. S. Chung, G. S. Yoo, C. H. Lim, C. A. Jun, H. J. Cheon, "A Study on the current state of remarried families and quality of remarital relationship."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Vol. 38, No. 4, pp. 1-20, 2000.
- [13] D. S. Lee, Y. C. Kim, "Inquiry on the philosophical backgrounds and methodological characteristics of grounded theory as qualitative research method." The Korea Association of Yeolin Education, Vol. 2, No. 2, pp. 1-26, May 2012.
- [14] A. Strauss, J. Corbin,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s and procedures for developing grounded theory." Sage Publications, Inc. 1998.
- [15] A. Strauss, J. Corbin,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Vol. 15, Newbury Park, CA: Sage. 1990.
- [16] K. J. June, H. J. Joo, Y. M. Kim, "Occupational Health Nurses' Role Experiences."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Nursing, Vol. 20, No. 3, pp. 250-260, November 2011. <http://dx.doi.org/10.5807/kjohn.2011.20.3.250>
- [17] L. H. Ganong, M. Coleman, "Preparing for remarriage : Anticipation the issue, seeking solutions." Family Relations, Vol. 38, No. 1, pp. 28-33, 1989.
- [18] H. G. Koo, "A Study on Proposal to Develop Senior related Policies : Convergence Approach of both Age Norm and Hoping Activities."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and Management, Vol. 14, No.4, pp.101-110, 2016. <http://dx.doi.org/10.14400/JDC.2016.14.4.101>
- [19] S. H. Cho, "Factors affecting the Health Promotion Behaviors of the Low-Income Elderly Living Alone-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and Management, Vol. 13, No. 12, pp. 423-431, 2015. <http://dx.doi.org/10.14400/JDC.2015.13.12.423>
- [20] I. J. Park, "Divorced and remarried elderly." New Home, Vol. 45, pp. 21-23, 2002.

이 도 영(Lee, Do Young)



- 2010년 8월 : 아주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5년 2월 : 아주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3년 3월 ~ 2015년 2월 : 백석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2015년 3월 ~ 2016년 2월 : 경북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2016년 3월 ~ 현재 : 안산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만성질환, 스트레스, 간호중재, 응급간호
- E-Mail : shinern@ansan.ac.kr

이 혜 진(Lee, Hye Jin)



- 2011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5년 2월 : 아주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수료)
- 2016년 3월 ~ 현재 : 서울여자간호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아동의 건강문제와 간호, 외래간호, Q방법론
- E-Mail : hjlee@snjc.ac.kr

정 은 선(Jeong, Eun Seon)



- 2013년 2월 : 아주대학교 대학원 보건정책과 (보건학석사)
- 2016년 2월 : 아주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수료)
- 2015년 3월 ~ 현재 : 안산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노인의 건강문제와 간호, 지역사회 간호
- E-Mail : esjeong@ansan.ac.kr